

통일 칼럼

타국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미군 특수부대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 도청을 위해 특수작전을 펼쳤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북한도 아직 반응이 없다.

2019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과시했다.

트럼프는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방금 아주 좋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편지입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비밀 군사 작전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북 작전에 투입된 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실 팀’이다. 이들은 수개월간의 훈련을 거쳐 잠수함을

타고 한반도에 북한 해안에 침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도청을 위한 장비 설치 작업 목적이었다고 보도됐다. 김정은의 통신을 가로챌 전파 장비를 설치해 도청하기 위한 작전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에서 내린 특수 부대원들이 도청 장치를 갖고 조용히 북한 해안을 향해 이동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어둠 속에 북한 어린이 탄 작은 보트가 있었다는 것이다.

작전이 발각되면 자칫 북미 대화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수부대원들은 북한 어민들을 모두 사살하고 시신을 가라앉힌 뒤 잠수함을 타고 퇴각했

다고 뉴욕타임스는 자세히 보도했다.

전현직 당국자 수십 명을 인용해 북한 침투 비밀 작전을 상세히 폭로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김정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신력이 높은 뉴욕타임스가 수십 명의 전현직 당국자를 취재해서 당시 작전을 매우 상세히 보도한 만큼, 사실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은 꾸준히 전 세계를 상대로 적성국과 잠재적 적성국을 상대로 특수 작전을 수행해 오고 있다. 만약 해당 보도가 사실일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대

미 인식과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여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병행한다는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화단으로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2019년 당시 김 위원장이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북미 대화를 새롭게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뉴욕타임스에 나온 당시 미군의 비밀 작전 시점 이후 김정은은 같은 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도 모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나온 북 중 러의 반미 연대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 유력 언론의 미군 북한 침투 사건 보도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여부와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위라벨 문화 확산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업체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난 8월 14~15일 광복절 연휴 기간에 택배 배송을 멈추었다. 택배 종사자 복지 차원에서 월 권리를 강화해 주는 조치다.

CJ대한통운은 이날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모든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멈추고, 휴식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20년 택배업체와 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택배 업체와 택배 종사자들 간 자율 합의에 따라 매년 이행돼 왔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최근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외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3일을 보장해준다. 자녀 학자금, 출산 축하금, 명절 선물 등을 지원하며,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 및 정밀검진도 실시해 택배기사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위라벨’ 문화가 택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구광처럼 기업들의 ‘택배 쉬는 날’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쿠팡은 택배업체와 다른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변화 흐름에 맞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경우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택배업계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위해 택배 종사자들도 ‘월 권리’를 누리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외국인 대학생 25만명

올해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 학생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 25만 명을 넘어섰다. 초중고의 다문화 학생은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진입했다.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 학생 수는 25만3434명이다. 지난해 20만8962명에서 21.3% 증가한 수치다. 사립대들이 학령 인구 감소, 대학 재정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 학생을 유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중국 7만6541명, 베트남 7만5144명, 우즈베키스탄 1만6786명, 몽골 1만5270명 순이다. 전문학사·학과과정의 외국 학생은 지난해 9만3624명에서 올해 12만150명으로 증가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도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늘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55만

1250명으로 지난해 568만475명에서 13만명가량 줄어들었다.

반면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올해 20만2208명으로 지난해 19만8814명 대비 4.3% 증가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4%로, 전년 3.8% 대비 0.2%포인트 늘어났다.

지역별로 초·중·고학생은 충남(7.5%), 전남(7.3%)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았다. 중·고학생은 전남(7%)·충남(6%), 고·등학생은 전남(5.2%)·경북(4.8%)에서 높았다.

유치원은 올해 8141개원으로 1년 새 153개 줄었다. 유치원 폐원이 서울(18개), 경기(53개)에 집중됐다.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30~40대가 대거 유입하다보니 폐교되는 학교보다 새로 생기는 학교가 더 늘어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FCC 비난하는 ‘지미 키멜 라이브!’ 중단 항의 시위자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캐피탄 엔터테인먼트 센터 앞에서 한 시위자가 ‘지미 키멜 라이브!’ 방송 중단에 항의하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찰과 대치한 프랑스 반정부 시위대



지난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반정부 시위대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긴급 재정 방편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철도·의료 종사자, 공장 노동자, 문화계 종사자 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